



[라이프] 돌아온 골프의 계절 더 젊고 세련되게 라운딩을 너



Life

[중·중견] K물류 위상 높인 CJ대한통운 우즈벡 초대형 물류 수주 L4



# 서울시, 백신 접종 대장정... 10월 말까지 70% 접종 목표

### 대상·방법·모니터 '333대책' 준비 26일부터 요양시설 9.6만명 접종 7월까지 전 자치구에 접종센터 설치 이상반응자 등 접종 현황 투명 공개

서울시가 26일부터 '천만 시민 백신 접종 대장정'에 들어간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 오기 전인 올해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약 606만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전 시민 백신접종을 위해 '3단계(접종 대상) - 3개 트랙(접종 방법) - 3중 관리(모니터링·조치)'를 골자로 하는 일명 '333대책'을 준비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백신 접종은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달 말부터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1단계 접종 대상자는 총 9만6000명으로, 전체의 1.6%다. 시는 2월 26일부터 다음달까지 서울 시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 시설 277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를 포함 2만2615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고위험 의료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시민 백신접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 종사자, 코로나 대응 요원들을 상대로 한 접종이 실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2단계(4~6월)에선 전체 대상자의 30.5%인 185만명에 대한 접종에 나선다. 65세 이상 어르신 154만5000여명,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1만여명과 종사자 5700여명, 1단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명,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2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3단계(7~10월)에선 전체의 67.8%인 411만명을 타깃으로 한 접종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50~64세 성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 종사자,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그 외 시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 대

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백신을 맞은 시민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접종 방법은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방문접종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예방접종센터에선 초저온 관리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중앙접종센터 1곳이 마련되고 지역접종센터 29곳은 구민회관, 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차려진다. 시는 자치구별로 지역접종센터를 1곳씩 설치하되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강남, 강서, 노원, 송파 4개 자치구에는 한 곳을 더 추가로 만들어 병목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시 1호 지역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내 다목적 강당에 생기며 3월 중순부터 가동된다. 시는 7월까지 모든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시민들이 집 근처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6월까지 위탁의료기관 3500곳을 확보하는 한편 이동이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및 중증장애인시설 입원·종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예진 - 모니터링 - 응급조치'로 구성된 3중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

시는 예진 단계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한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한다. 백신을 접종한 뒤에는 현장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한다. 시는 백신을 맞은 시민이 귀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신고를 하면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병원에 연계하기로 했다.

백신접종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일일 접종 현황과 접종자 수, 접종시설 현황, 이상반응자 현황 및 조치 결과 등의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시는 약속했다.

서울시에 타 지역 거주자들의 왕래가 잦아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에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현재 예방접종을 통한 1차적인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전파되는 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집단면역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 청년 5000명에 월세 최대 200만원 지원

###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 비중 ↑ 월 20만원 최장 10개월간 보조

서울시는 올해 청년 5000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생애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발을 뒀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

하, 월세 60만원 아래인 건물에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한다.

시는 금년에는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자 조건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아래 선정 인원은 2500명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시는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적절 여부 검토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한다. 월세 지원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된 '신청모집 공고문'(2월 24일자)을 참고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일대일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 청년월세 지원 상담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크라우드 펀딩으로 스타트업 지원

### 증권형·후원형 총 50개사 선발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유망 창업팀 모집에 나서며 본격 시동을 걸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방식을 도입, 효과적인 시장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온라인 펀딩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면, 대중 소액투자자들의 선택과 의견 환류로 시장성을 평가받은 후 투자유치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는 투자자들에

게 펀딩의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는 '증권형(투자형)' 30개사, 제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리워드형)' 20개사 등 총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을 위한 중개수수료, 동영상 및 펀딩페이지 제작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후원형'은 최대 500만원, '증권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펀딩 성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자교육과 1:1 컨설팅 및 멘토링 등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증권형' 30개사 중 우수한 펀딩 실적을 기록한 15개사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성기 기자 ask9990@

## 숙박형 고시원 78%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서울시, 585곳에 설치 공사비 지원

서울시는 관내 숙박형 고시원 750곳 중 585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고시원 영업주에게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고시원 화재 이후 2019년 8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전체 숙박형 고시원의 78%에 간이스프링클러를 달았다.

간이스프링클러는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에서 소화용수가 자동 방수되는 설비다.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수조, 펌프 시설이 필요한 일반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간편하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5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2건 중 1건 합의 이끌어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약 200건이며, 이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유도한 사례가 절반에 이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는 지난해 총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47.9%인 92건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각하는 85건(44.3%), 조정불성립은 15건(7.8%)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안건은 2019년보다 6.6%, 2018년보다 24.7%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9 | 해질 / 18:22

2월 25일 (목) 음력 : 1월 14일

수도권 날씨 0 ~ 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